

제4강 정치(학)에서의 버추얼리즘 II

(1교시)

4. 버추얼리즘의 방법론적 원리

가. 실체가 아닌 사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건화하여 발생으로, 사건으로 다룬다.

나. 현현이 아닌 잠재: 표면에 드러난 것을, 그것을 규정하는 급진적이고 발생적인 기원의 관점에서, 발생적 구조의 관점에서 고찰한다.(존재자를 존재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다. 미분법, 혹은 문제제기의 힘으로서의 버추얼: 현재의 현실을 조건짓는 요소들과 그 비율관계들을 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미분할 새로운 문제들을 창출한다.

라. 미/분화의 두 가지 요소

(1) 미분화(잠재화)=미분적 요소와 비율적 관계의 새로운 재정립, 새로운 문제들의 정립

(2) 분화=현실화+국소적 적분

7.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대한 들뢰즈의 버추얼리즘적 해석(실재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텍스트>: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447~449쪽

마르크스와 헤겔의 근본적인 차이를 주장하는 주식가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처럼, 『자본론』 안에서 사회적 다양체의 중심부에 있는 분화의 범주(노동 분업)는 대립, 모순, 소외 등과 같은 헤겔의 개념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 개념들이 형성하는 것은 단지 어떤 외양의 운동에 불과하고, 이 개념들의 가치는 오로지 추상적인 효과들에 대해 타당하지만, 이 효과들은 이미 자신을 생산하는 원리나 진정한 운동과는 분리되어 있다. 분명 여기서 차이의 철학은 아름다운 영혼의 담론으로 빠져 들 위험성을 걱정해야 한다. 그 담론에 따르면, 어떤 차이들이 있고 또 오직 차이들밖에 없지만 사회적 장소와 기능들의 이념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위험에서 차이의 철학을 지켜내기에는 마르크스의 이름만으로도 족하다.

한 사회의 문제들은 하부구조 안에서 이른바 '추상적' 노동의 형식을 통해 규정되고, 그런 한에서 이 문제들은 현실화나 분화의 과정(구체적인 노동 분업)을 거쳐 어떤 해결 지점에 이른다. 그러나 해를 형성하고 있는 분화된 경우들의 총체 위에 그 문제의 그림자가 존속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그 경우들은 그 문제 자체를 왜곡하는 어떤 날조된 이미지를 반조하게 된다. 심지어 이 날조는 나중에 오는 것이라 말할 수조차 없다. 그 날조는 현실화를 동반하고 또 이중화한다. 문제는 언제나 해결되는 순간 동시에 **거짓 문제들** 안에 반조되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해는 어떤 분리 불가능한 허위성에 의해 왜곡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적 의미의 물신숭배는 사회적 의식을 동반하는 어떤 '부조리', 어떤 가상이지만, 이 가상은 의식에서 태어나는 주관적 가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가상을 뜻한다. 그것은 현실화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의식의 조건들에서 태어난 어떤 초월론적 가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분화된 사회적 실존 전체는 자신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짓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사회적 실존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거짓 문제들 안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은 이 거짓 문제들의 위조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다. 거짓 문제의 객관적 신체 안에서 모든 형태의 무의미들, 다시 말해서 긍정의 위조물들, 요소와 비율적 관계들의 기형들, 평범한 것과 특이한 것의 혼동들이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의미의 사건임에 못지않게 무-의미와 어리석음의 장소이기도 하다.

(2교시)

문제들은 본성상 의식을 벗어나기 마련이고, 어떤 허위의식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의식의 고유한 특성이 다. 물신은 가치에 대한 상식적 공통감이나 재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의식의 자연적 대상이다. 사회적 문제들은 오로지 어떤 ‘교정’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오로지 사회성의 능력이 초월적 실행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물신숭배에 빠진 공통감의 통일성을 깨뜨릴 때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성 능력의 초월적 대상, 그것은 혁명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은 차이의 사회적 역량, 사회의 역설, 사회적 이념의 고유한 분노이다. 혁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을 거쳐 가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에 대한 첫 번째 규정, 곧 **문제로서의 문제가 드리우는 그림자**라는 규정을 고정시켜놓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두 번째 규정 속으로 떠밀려가야 했다. 즉 부정적인 것은 **거짓 문제의 객관적 신체**이고, 그 자신이 이미 스스로 물신이다. 문제의 그림자, 그 부정적인 것은 또한 탁월하고 모범적인 거짓 문제이다. 실천적 투쟁은 부정적인 것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그 차이의 긍정하는 역량을 경유한다. 그리고 의인(義人)들의 전쟁은 지고한 능력의 쟁취,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는 능력의 쟁취이다. 의인들은 문제들을 그 진실된 모습에서 복원하면서, 또 의식의 재현과 부정적인 것의 형식들 저편에 있는 이 진실을 평가하면서, 또 마침내 그 문제들이 의존하고 있는 명법들에 다가서면서 그런 능력을 쟁취한다.

8. 맑스주의들의 현재

-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직접적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을 추방하고 있는 ‘기술적 생산력’에 대면하고 있다.
- 기술은 잠재성, 현실성; 가능성, 실재성이라는 극과 층위에서 고찰할 수 있다. 기술이라는 문제를 위의 도표 속에 배치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잠복의 극		현현의 극
		선택과 배치의 질서	
실체들	기술력	실현→	산업적 정보적 기계들
		가능화←	
	↗물화/제도화		↘객관화/주체화
		창조와 배움의 질서	
사건들	인류의 지적 삶	현실화→	테크놀로지
		잠재화←	

- 기술을 바라보는 현대 맑스주의들 대부분은 기술을 그 현현의 극인 테크놀로지로서 바라

보면서 그것이 인류의 지적 연결과 지적 삶의 현실화임을 무시한다. 그러므로 테크놀로지의 현 상태를 극복할 잠재화의 노선, 새로운 문제들의 창조를 위한 노선을 찾지 못한다.

— 그것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숭배적 경향: 과학적 사회주의와 정보사회론

- 과학적 사회주의는 기술발전이 이윤을 저하경향 때문에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므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가 물려줄 테크놀로지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시각에서 기술을 숭배한다.
- 정보사회론은 오늘날의 정보테크놀로지가 사회적 적대를 제거하고 인류를 풍부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숭배한다.

나. 비판적 경향과 파괴적 경향

- 프랑크푸르트학파는 기술이 자본의 지배의도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방의 불가능성이라는 정념에 빠진다. 현대의 테크놀로지 체제의 극복을 위한 잠재화의 노선과 주체성은 검토되지 않는다.
- 네로라다이트는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동일한 이유에서 노동계급이 현대의 기술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주의와 노동자 낙관주의의 결합.

다. 타협적 경향

- 포스트포드주의는 기술의 생산적 힘을 신뢰하면서 그 성과를 자본과 노동이 분배하자는 타협적 관점을 제시. 이 관점에서 계급관점은 점차 사라진다. 그러나 이 타협과 절충과 화해의 과정에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을 묶는 하나의 계급적 관계로서의 부르주아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된다.

9. 대안으로서의 비판적 경향

- 테크놀로지는 인류의 지적 삶과 지적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현대의 테크놀로지가 그것의 잠재력을 왜곡하여 현실화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문제들 속에서 잠재화할 단절과 창조의 방향을 찾는 것.
-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10. 잉여가치화와 자기가치화

- 현대의 잉여가치화는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착취한다(‘착취적 현실화’). 잉여가치화는 잠재적 삶을 억압하면서 삶을 공간적으로 현실화된 시간관계 속에 포섭함으로써 지속된다.
- 자기가치화는 삶시간의 노동시간으로의 현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미분하여 새로운 요소들과 새로운 관계들을 창출하는 실천이다.

	잠복의 극(L)		현현의 극(M)
		선택과 배치의 질서	
실체들(S)	노동시간	실현→	가치-잉여가치

		가능화←	
	↗물화/제도화		↙객관화/주체화
		창조와 배움의 질서	
사건들(E)	삶-시간	현실화→	노동시간
		잠재화←	

— LE→ME로의 이행이 억압적 관계의 결과라면 LS→MS로의 이행은 착취적 관계의 결과이다. 이 양자 모두에서 시간은 간접적으로 나타나며 척도에 의해 재현된다. LS→MS로의 이행이 가치화인데, 이로부터 잉여가치가 유래한다. 이것은 대의정치와 다수정치를 조건으로 전개된다. 대의정치의 좌파적 표현으로서의 노동정치도 잉여가치화를 수반한다.

— ME→LE로의 이행은 가치화를 역전시키고 시간의 직접적 표현을 가능케 할 새로운 문제들의 발견과정이다. 이것은 노동시간의 삶시간으로의 재전유, 역전을 지향한다. 이것이 ‘해방적 잠재화’로서의 자기가치화이다. 이것은 잉여가치화에 의한 시간의 공간화, 공간적 시간의 지배를 극복하고 시간을 그 순수지속의 상태로 회복하려 한다. 이것은 공간화된 시간을 통해 개개인들에게 각인되는 동일성을 해체하는 소수정치-삶정치를 창출한다.